

韓国語能力試験 ことわざ一覧

- 둘째 가라면 서럽다 その道の第一人者だ(直訳:2番目にされたら悲しい)
- 천금을 주고도 살 수 없다 お金では買えない(千金をもらっても生きられない)
- 누워서 떡 먹기 きわめて簡単・楽勝なこと(寝てもちを食う)
- 모르는 게 약이다 知らぬが仏(知らないのが薬だ)
-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밀다 しらを切る(鶏をたべて水かきを出す)
- 눈 가리고 아웅 한다 すぐバレるような手段で騙そうとする(目を隠してにやあという)
- 새근새근 すやすや
- 티끌 모아 태산 ちりも積もれば山となる(ちりも積もれば泰山)
-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올라간다 でしゃばる人が多いと物事が上手いいかない(船頭多くして船山へ上る)
-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 どうすることもできない(鶏を追いかけていた犬が屋根ばかりを見上げる)
- 이왕이면 다홍치마 どうせ買うなら高価なものが良い(どうせなら紅のスカート)
- 열 실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とにかく人の心は知りたいものだ(10尋の水の底はわかってても、尋の人間の心はわからない)
-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どんなに困難な状況でも、それを切り抜ける方法はある(天が崩れても、飛び出る穴はある)
- 세월이 약이다 どんなに辛いことも時間が経てば消えうせる(年月が薬だ)
-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もの見方によってどうでも取れる(耳にかければ耳輪、鼻にかければ鼻輪)
- 웃는 얼굴(낮)에 침 못 뱉는다 愛想のいい人には邪険な事は言えない(笑っている顔には唾は吐けない)
- 싼게 비지떡이다 安いものはその分良くない(安いものはおから入り餅だ)
- 갈 수록 태산이다 一難去ってまた一難(行けば行くほど大きな山である。)
- 아니 댄 굴뚝에 연기 날까? 噂のないところで煙立たず(火を使ってない煙突で煙が出るかな?)
- 쇠뿔은 단김에 빼라 何事もやる気のあるうちにやっしまえ(牛の角も一気に抜け)
- 무궁무진 果てしなく、限りのないさま【無窮無盡】果てしなく、限りのないさま)
- 금강산도 식후경이다 花より団子(金剛山も食後の見物だ)
- 그림의 떡 絵に描いた餅
- 급할 수록 돌아가라 急がば回れ
- 가는 정이 있어야 오는 정이 있다 魚心あれば水心(行く情けがあつてこそ返ってくる情けがある。)
- 울며 겨자 먹기 嫌なこともやむを得ずすること(泣きながらからしを食べること)
-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原因によって結果が生じる(大豆蒔いて大豆生え、小豆蒔いて小豆生える)
- 천냥 빚도 말로 갚는다 言葉使いはとても大切だ(千兩の借金も言葉で返す)
- 혀 안에 도끼 들었다 口は災いの元(舌の中に斧が入った)
- 세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 三つ子の魂百まで(3歳の癖が80歳までいく)
- 작은 고추가 더 맵다 山椒は小粒でもぴりぴりと辛い(小さなとうがらしがもっと辛い)
-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날 없다 子供の多い親は心配事が絶えない(枝が多い木に風の静まる日はない)
-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飼犬に手をかまれる(信じている斧に足をかまれる)
- 내 코가 석자이다 自分のことで精一杯だ(私の鼻がひさごだ)
-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自分の欠点は棚に上げておいて、他人の悪口ばかりを言う(くそまみれの犬がぬかまみれの犬を汚いとがめる)
-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手段・方法はともかく目的を達成すれば良い(横道にそれでもソウルに着きさえすれば良い)

-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焼け石に水(底の抜けたかめに水を注ぐ)
- 핑계 없는 무덤 없다 色々言い訳して責任逃れすること(言い訳のない墓はない)
- 뱀새가 황새를 따라가면 다리가 찢어진다 人の真似をして能力以上のことをすると酷い目にあう(ダルマエナガ(鳥)がコウノトリの歩き方を真似すると、股が裂ける)
- 우물에서 송늱 찾듯 性質の非常にせつちなこと(井戸でおこげ湯を探すように)
-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 한다 成功した後は昔の苦しかったことを忘れてしまう(カエルがおたまじゃくしの頃を思い出せぬ)
-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石橋もたたいて渡れ
- 천 리 길도 한 거름부터 千里の道も一歩から
-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 他人を困らせると何倍もの報いを受ける(一升ますで与えて一斗で得る)
- 독 안에 든 쥐 袋のねずみ(逃げ出すことができない)
- 누워서 침 뱉기 天を仰いで唾する(寝て唾を吐く)
- 등잔 밑이 어둡다 灯台下暗し
- 동물 이름이 들어가는 말 動物の名前が入る言葉
- 도둑이 제 발 저리다 堂々と出来ない(泥棒は自然と自分の足がしびれる)
- 자다가 봉창 두드린다 突拍子もないことを言う(寝ながら窓を叩く)
- 수박 겉 핥기 内実も知らずに表面的に空回りする行動(スイカの皮舐め)
-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굵다 売り言葉に買い言葉(行く言葉が綺麗でなくては、返ってくる言葉も綺麗ではない)
- 땅 짚고 헤엄치기 非常にたやすい(地について泳ぐ)
- 겉 다르고 속 다르다 表で表している行動と心の中の考えが違うこと(表と裏が異なる)
- 하룻강아지 범 무서울 줄 모른다. 怖いもの知らず(子犬虎の怖さを知らない)
- 배보다 배꼽이 크다 腹よりへそが大きい
- 길고 짧은 것은 대 봐야 안다 物事の違いは実際比べて見ないと分からない(長短は比べてみないと分からない)
- 장님 코끼리 다리 만지듯 物事の全体を見ず一部だけ見て判断する(盲目の人が象の足を触るように)
-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壁に耳あり障子に目あり(昼の話は鳥が聞き、夜の話はネズミが聞く)
-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便りが無いのは良い便り
-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 未熟な技術は人に教えるものではない(未熟な巫女は人を捕まえる)
- 서당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門前の小僧習わぬ経を読む(書堂の犬 3年にして風月を詠む)
-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容易なことでも協力し合えば一層容易くなる(白紙 1枚も一緒に持ち上げれば、ました)
-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隣の芝生は青い(他人のもちが大きく見える)
- 고기는 씹어야 맛있고 말은 해야 맛이다 話したいことはしてこそ効果がある(肉は噛んでこそ味が出て、話しは話してこそ味がある)
- 하늘의 별 따기 不可能に近いこと(天の星摘み)
- 쥐구멍에도 별 들 날이 있다 待てば海路の日和あり(ネズミの穴にも陽光が射し込む日がある)
- 쇠귀에 경 읽기 牛の耳に経を読むようなもの(馬の耳に念仏)